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낙하산 천국

MB/박 정권 동안 '정피아' 200명 · 산피아 59명 재취업... 조배숙 의원, "정부는 '낙하산 인사 없다' 약속해야"

MB(박근혜 정부)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친이·친박계 인사와 산업부 퇴직 관료들을 위한 낙하산 인사의 천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자체분석한 결과, 위 기간동안 소위 '정피아(정치권+마피아)'로 불리는 친이·친박계 인사 200명이 산업부 산하 37개 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갔고, 산업부 퇴직관료(산피아) 59명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인사를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에는 16명의 친이·친박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갔고, 대한석탄공사에는 15명, 한국가스공사에는 13명, 한국가스기술공사에는 12명, 한국에너지공단 11명, 강원랜드와 한국전력기술이 각 9명 등 조사대상인 산업부 산하 37개 공공기관중 37개 기관에 팔고부 낙하산 인사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부의 퇴직관료, 소위 '산피아'들의 공공기관 재취업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10년동안 산업부 퇴직관료 154명중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59명, 산업부 유관기관(비영리법인)에 95명이 각각 재취업에 성공했다.

조배숙 의원은 "2017년 현재 산업부 산하 기관중 기관장이 공석인 곳이 15곳에 이르고 있고, 감사나 이사 등도 22개 자리가 공석"이라고 밝히며, "이들 자리에 과거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논공행상' 식의 낙



평창올림픽 홍보위원 위촉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강원도 강릉 교통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제18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김희진(앞줄 왼쪽부터) 북유림협회장, 최친경 대한체육회 주무관, 문재인 대통령, 허남세 중국 광저우 협의회장, 채기해 FC서울 장내아나운서.

하산 인사가 또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향후 정부는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서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지극히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김상조 "네이버 기사 재배포 '살펴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1일 네이버의 기사 재배포 논란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직권조사와 관련된 문제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네이버 기사 재배포 논란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자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는 최근 한국축구연맹 관계자의 청탁 문자를 받고 '연맹 비판기사'를 뉴스 수용자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재배포한 일을 시인한 바 있다.

이해진 네이버 총수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벌어진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대립건설의 하도급업체 갑질 의혹을 지삼욱 바른정당 의원이 지적하자 "대기업이 시대의 변화, 우리 사회의 '열(乙)'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고 (사회 정의와) 부합되지 않는 관행을 갖고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놴다.

아울러 한국GM의 위기가 미국GM과 비정상적인 거래 탓이라는 지적에는 "사실 자국의 경쟁력강화를 국경 밖으로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 밖에 없다"며 "하지만 현행법령에 의해 접근할 수 있는 지 적극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시스

국민의당 도당, 국민정치아카데미 1기 수료식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된 국민정치아카데미가 지난 31일, '2018 지방선거 정세전망 및 선거전략' 강의를 끝으로 4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도당 회의실에서 중앙당 정치연수원 부원장인 원성록 강사의 마지막강의를 진행한 뒤 수료식을 가졌다.

원 부원장은 "2018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다당체제를 확산시키고 다원적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의당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외국인노동자 고용으로 건설사 연간 1.8조 챙겨

(공공건설현장)

내국인 인건비와의 차액 건설사뭉... 정동영 의원, "정부가 임금 직접 지급해야"

임금이 내국인 노동자의 절반 수준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건설사가 중간에 챙기는 공사비가 공공건설현장에서만 연간 1조 8,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공사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직종 시중노임단가'는 일당 평균 18만6,963원이었다. 즉, 건설노동자 1명이 하루에 18만 6,963원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건설사에 지급하는 공사비 계산의 기준이다. 이는 건설업 현장 노동자가 내국인임을 전제로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매년 임금 상승으로 지난 5년간 평균 32%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이미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상당수 고용되는 것이 실정이다.

정동영 의원이 지난해 7월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영광 칠산대교 공사현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의 일용노동비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노동자가 전체의 68%,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서해선 제2공구 현장 역시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47%에 이른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일당은 8만1,175원이다. 정부 공사 현장에 실제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 수는 내국인 노동자의 두 배 가까이 되지만, 임금은 내국인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1인당 하루에 10만1,788원을 빼돌릴 수 있다.

정동영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건설사가 중간에 인건비 차액으로 챙기는 뭉은 연간 1조 8,000억 규모로 추정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6년 국내 건설기성액은 232조원 규모다. 이 중 공공공사의 비중은 30%로 약 70조원에 이른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평균 노동일은 149일(건설근로자고용제)이며, 2015년말까지 퇴직공제에 가입된 적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39만 2,000명이다.

국내 건설기성액 중 건설노동자 수를 근거로 추산하면, 약 70조원의 공공공사 계

약 시 내국인 임금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받은 건설사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연간 1조 8,00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된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실업을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만들겠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발주한 공공현장의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국민의 세금도 중간에 원청(재벌)기업이 가로챈다"며, "정부는 노동자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사에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일한 만큼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만 한다고 해도 더 많은 청년들이 건설현장을 찾을 것"이라며, "공공현장에서 적절한 임금을 받은 노동자가 기술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이용호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활동 인명피해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30일 소방활동 시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소방공무원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로 민·형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소방청장 등이 소방공무원의 소송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인명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소방관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꺼이 화마로 뛰어드는 사람들이다"라며, "이러한 소방관들의 희생과 노고를 국가가 보상은 못해줄 망정,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순수와 융합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싣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장생전	
서론서예전	
작가와의 만남 - 10.28(토) 호암 준영홍 / 11.11(토) 현봉 최수일	갤러리 O
탁본체험	
나도 서예가	갤러리 R (로비)
서예, 책을 만나다전	
서론서예전	
전, 서각의 어울림전	갤러리 R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갤러리 I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등불서예전	아외전시
JS호텔 학술대회 - 10월 22일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7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2017기념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황옥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감람서예관 감람 송성용전	

주최  전라북도

주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